

흥미진진 공주

금강신관공원

—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 봄.
박덕제·신효실 씨 가족은 주말을 맞아
봄옷으로 갈아입은 고향을 찾았다.
공산성과 금강을 배경으로
한가로이 봄을 즐기기로 했다.



의정 활동 소식

공주시의회 첫 추경예산 8천736억원 가결

코로나19 대응·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68억원 포함, 유구 관불산 석산개발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공주시의회(의장 이종운)는 3월 29일 제22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4월 6일까지 9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임시회에서는 이종운 의장, 임달희 의원, 오희숙 의원, 이창선 의원, 정종순 의원, 박병수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으며 회기동안 ▲공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3건 ▲중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중심시가지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등 2건은 원안대로 가결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안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차 추가경정예산안 총 3건을 수정 가결했다.

또한 쌍신산업단지 외 2개소를 현장 방문하여 전반적인 사업 개요 및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유구 관불산 석산개발 추진 철회 촉구 결의문’을 통해 관불산 자

연환경과 주민 생존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석산개발 추진 중지를 역설했다.

이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공주시의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에서 시행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 부족이 주요 진출 사유로 집행부에서 통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귀농·귀촌자의 경우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마을 지도자 등을 강사로 선정하여 주민의식을 개선해 공무원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주민의식을 갖고 인구 증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모든 안건을 의결 후 시의원 일동은 ‘유구 관불산 석산 개발 추진 철회 촉구 결의문’을 통해 관불산 자연환경과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석산개발 추진 중지에 뜻을 모았다.



유구 관불산 석산개발 추진 철회 촉구 결의문 낭독(관련 기사 20면)

의정 활동 소식

유구 관불산 석산개발 추진 철회 촉구 결의문

(주)삼표산업은 관불산에 토석채취 추진을 철회하여 유구읍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관불산은 유구의 역사와 추억이 공존하는 유구의 심장 같은 곳으로 100여 년 역사의 유구초등학교와 유구중학교, 공주마이스터 고등학교 교가에 나오는 유구의 자존심이다.

관불산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유구천의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식수원이요, 농수 공급원으로 주민들에게 대를 이어온 청정 삶의 터전이다.

또한, 우리 청정 유구를 지키고, 관광 휴양지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고장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무시하고 석산개발을 추진한다면 청정 관불산의 환경 파괴는 물론 유구천 오염에 의한 충남의 젓줄 금강은 분진에 의한 수질오염, 지하수오염, 농수오염으로 주민들의 건강권, 경제권, 행복권 파괴로 이어질 것이며, 지방도를 이용하는 채석 운반차량 통행으로 주민들과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이에, 공주시의회는 우리지역 유구의 심장같은 관불산 자연환경과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아름다운 유구생태하천의 수질오염과 주민

과 학생들의 교통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금강유역환경청과 산림청에 우리 시의회의 뜻을 전하고, (주)삼표산업에 석산개발 추진을 철회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하나, 유구읍 청정 관불산을 파괴하는 석산개발 추진을 철회하라!

하나, 비단물결 금강을 오염시키는 석산개발 추진을 중지하라!

하나, 석산개발 추진을 철회하여 지역주민 생존권을 보장하라!

하나, 공주시의회는 관불산 석산개발 추진을 철회할 때까지 유구읍민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끝까지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

사진으로 보는 현장 시의회

관내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쌍신산업단지 등 3개소 방문, 주요 현안 사업 질의



보건일의 날 맞아 보건소·공주의료원에 격려품 전달

현장 의료진과 관계자 노고 격려



의원 5분 발언

친일 매국노를 발굴하여 후세에 알리는 단체를 만들자

이종운 공주시의회 의장

공주시의회 이종운 의장은 3월 29일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주 지역 애국지사를 선양하여 친일 매국노를 발굴하자”고 주장했다.

이종운 의장은 “웅진성주 예식진이 660년 의자왕을 사로잡아 항복하지 않았다면 백제도 멸망하지 않고, 668년 고구려도 멸망하지 않았다면 중국 만주와 요동 땅이 중국으로 편입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1894년 우금치 전투 시 만행을 일삼은 참관 공주 출신 조병갑 고부군수를 생각하니 영령들께 죄스럽다”고 포문을 열었다.

또한 “과거 무능한 왕과 호의호식만 생각한 관리들 때문에 36년간 일제 침략 지배를 받았다”며 “지금도 매국노 후손들이 떳떳거리며 사는 현실이 분하고 원통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찬란했던 백제 무령왕, 국가를 배신한 예식진, 우금치 농민 백성 영령, 탐관오리 조병갑, 친일파들도 결코 잊지 않겠다”며, “공주 지역 애국지사를 선양하고 친일 매국노를 발굴하여 후세에 알리는 단체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끝으로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 일제에 빌붙어 고관대작을 지내고 후손들은 호의호식하고 이를 비호하는 세력들을 사라져야 한다”며 “일신 우일신 하는 공주가 되기 위해 선양 알리를 하려고 하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유구 관불산 채석단지 개발을 즉각 중단하라

박병수 공주시의회 의원

박병수 의원은 3월 6일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유구 관불산 채석단지 개발을 적극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불산은 산 모양이 부처를 닮은 데서 유래되었으며 예전에는 산꼭대기에 막대기를 꽂고 말굽을 높였다고 전해져 내려왔다”라며 “유구천으로 합류하는 고천천의 계곡 상류부는 생태학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공간이다”고 포문을 열었다. 또한 “정기어린 관불산은 유구읍의 상징이자 공주시가 명승지로 지정하여 길이길이 보존해야 할 중요한 자산”이라면서 “최고의 예언가 격암 남사고 선생께서 10군데 명당 중 유구, 사곡을 여섯 번째로 평한 곳이며 현대의 예언가들도 명당터로 입을 모으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유로 관불산의 상징성과 정체성은 매우 중차대하여 학교 교가로 채택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지역민의 정신과도 같은 곳이다”라며 “남사고 선생께서 예언한 조선시대 명당 10곳 중 유구, 마곡 즉 유마지간은 양반, 평민 가릴 것 없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곳이며 정감록을 신뢰하는 비결파들이 작물과 인삼을 가져다가 개척한 곳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불산은 유구읍 어느 곳에서나 늘 바라 볼 수 있는 지역이며 마치 유구를 지켜주는 수문장 같은 들판 산세로 채석단지로 개발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라며 “관불산 훼손은 유구읍민의 정체성 말살은 물론, 공주시민 모두에게 육체적·물질적 피해를 영원히 안겨주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채석 예정 구역이 관불산의 허리를 훼손하여 26년간 채석한다 하니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발로 인한 분진, 소음 등 환경피해로 유구읍민의 정주여건이 마비되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행복추구권이 상실될 것이 명백하므로 채석장 개발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번 채석장 개발은 유구읍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공주시 전체의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자손만대로 영구히 보존하며 머물 수 있도록 관불산 채석단지 개발이 취소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의원 5분 발언

정안천 공원 확대화 통한 관광명소 만들자

임달희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공주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현재의 정안천 공원 건너편도 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임달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연꽃과 메타세콰이어 길로 유명한 정안천 공원화를 건너편까지 확대하자고 나섰다.

임 의원은 3월 29일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정안천은 공주-의당 방향의 편도공원으로 조성돼 있어 관광객들이 의당에서 곧바로 공주를 빠져 나가게 만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안천변 공주~의당 방향의 맞은편 천안-공주 방향 둔치가 현재는 풀만 무성한 채 버려진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임 의원은 “공주IC-세종 간 도로가 개통돼 정안천변 인근 지역은 공주 지역 IC 중 가장 이용이 많은 경로가 될 것”이라며 “이곳을 온전히 개발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코아루·삼한나우빌 공원과 연결돼 외지인들이 공주에 들러 편하게 이용하고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기존 정안천 공원을 연결시키는 다리 등의 시설을 함께 만들어 준다면 이곳은 정안천을 중앙에 두고 상호 왕래 가능한 명품 공원으로 변모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원이 잘 꾸며지면 관광객들이 공산성을 비롯한 시내권 문화재와 명소를 탐방한 뒤 신관동 둔치공원과 미르섬에 공산성 야경까지 감상할 수 있는 멋진 여행코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덧붙였다.



송산리고분군을 무령왕릉고분군으로

오희숙 공주시의회 의원

오희숙 의원은 3월 29일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송산리고분군’을 ‘무령왕릉고분군’으로 명칭을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오 의원은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8개 유적 중 하나인 무령왕릉이 송산리고분군이라는 명칭으로 포함돼 실제와 일치되지 않다”며 “송산리고분군을 무령왕릉고분군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고 말했다.

무령왕릉이 세계유산 목록에 ‘송산리고분군’이 된 이유는 사적 지정 명칭에 따른 것이므로, ‘송산리고분군’을 ‘무령왕릉고분군’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1971년 송산리고분군 구내에서 무령왕릉이 발굴되었지만, ‘무령왕릉’은 문화재 지정 명칭으로서의 지위를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고, 사적의 지정 명칭은 ‘송산리고분군’, 일반적인 유적 명칭은 ‘무령왕릉’으로 지칭되어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또한 “일제강점기 ‘송산리’는 고분군이 소재한 지명이었지만, 현재 ‘송산리’라는 지명은 ‘송산리고분군’에만 남아 있는, 사용되지 않는 지명”이라며 “송산리고분군이 무령왕릉 지구를 지칭하는 것임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 관광객과 지역민 간에 의사소통의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령왕릉이 송산리고분군으로 표시됨으로써 백제역사유적지구 중심 유적 중 하나인 무령왕릉의 위상이 부각되지 못하고 홍보 효과 역시 크게 훼손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2021년은 무령왕릉이 발굴된 지 50주년이자 무령왕이 갯위강국을 선포한지 1500주년이 되는 해”라며 “무령왕릉 발굴 50주년 사업으로 송산리고분군의 사적 명칭 변경”을 촉구했다.

끝으로 “전문가 조언을 받아 문화재청에 상정하여 명칭 변경을 제안한다”며 “사적 지정 명칭 변경 이후 후속 조치로 세계유산 지정 명칭 변경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주시 맞춤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하자

정종순 공주시의회 의원

정종순 의원(국민의힘)은 3월 6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주시만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첫 의정 활동 중 하나로 공주시 홈페이지, 각종 문화관광 및 교육 사이트 등의 통합과 관리체계 구축에 관해 5분 발언을 했었다”라며 “그 후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활동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여행업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일대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정책을 추진하면 그 뒤를 따라갔으며 공주시도 주변 큰 도시에서 선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지켜보다가 뒤이어 추진했다”며 “정책의 기본은 데이터, 통계로 관광, 경제, 복지, 교육은 각각의 성격이 매우 다른 분야로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빅데이터며 발 빠른 지자체는 위의 4가지 영역만이 아니라 교통까지 반영해서 스마트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 작업을 실시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관광객에게 안내 박물관, 맛집, 숙소 등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청소년문화센터, 도서관 등 교육정보를 한번에 확인하며, 대중교통데이터, 독거노인 보살핌을 IoT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것을 상상해보자”며 “이런 데이터 정보가 모인다면 2, 3년 내에 공주시만의 맞춤형 정책으로 안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주시의 앱 개발 및 관리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한 게스트하우스 대표님의 말을 빌려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잠정 휴업 중으로 재난지원금은 한 명의 인건비도 되지 않는다”면서 “공주시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정책으로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당장 2, 3년 이내에 닥칠 미래도 준비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미래에도 공주시는 다른 도시의 뒤만 따라다녀야 한다”며 “정보가 곧 힘이며 지방자치시대에 공주시가 선도적인 정책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원 신상 발언

고생중인 보건소 직원에 하루빨리 백신휴가 보내라

이창선 공주시의회 의원

이창선 의원은 3월 29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얼마 전 보건소를 방문했는데, 야간 9~10시까지 근무하는 모습을 보고 제 모습이 부끄러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지방선거를 위해 행사장을 다니는 동료 의원과 제 스스로에게 자책감이 들기까지 했다”면서 “공주시보건소 직원들에게 하루빨리 백신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강원도 고성군에서는 백신접종을 맞은 보건소 직원들에게 접종 다음날 하루 휴가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 의원은 “조례를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상위법을 들먹이며 안된다고 이야기한다”면서 “타 시군을 보면 시군의회에서 발의한 것을 국회의원들이 보고 입법 발의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왜 안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공주시가 관광도시인 만큼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방역에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힌 뒤 “방역과 코로나19에 노고가 많은 공주시보건소와 보건소장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